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26, October 2026, pp. 1214-1241**
DOI: 10.15738/kjell.26..202610.1214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ISSN: 1598-1398 / e-ISSN 2586-7474

http://journal.kasell.or.kr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토익 리딩 파트 5 문법 문항 오답 양상 분석

Hyesun Cho (Dankook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ly 16, 2026
Revised: August 11, 2026
Accepted: September 23, 2026

Cho, Hyesun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82-31-8005-3968
Email: hscho@dankook.ac.kr

ABSTRACT

Cho, Hyesun. 2026. An analysis of incorrect answer patterns on TOEIC reading Part 5 grammar items among Korean university EFL learner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6, 1214-1241.

Most grammatical error analyses have focused on EFL students' writing, with less attention to performance on controlled grammar tasks. This study analyzes incorrect answer patterns in TOEIC Part 5 grammar exercises among 220 Korean university students across four independent annual cohorts. Students reported the question numbers of items they had answered incorrectly through the university's e-learning system. In the descriptive analysis, sentence structure and nouns had the highest mean error rates (i.e., rates of incorrect answers). However, the main effect of grammatical category was not significant in a linear mixed-effects model accounting for item- and year-level variation. Supplementary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coordinating/noun-clause conjunction and participle categories contained the most items with error rates above the overall mean. Across all four cohorts, mean error rates for sentence structure and nouns exceeded the corresponding annual overall means, whereas those for prepositions and comparisons remained below them. Analysis of individual items with high error rates showed that the two items with the highest mean error rates involved noun countability. Items with relatively high error rates included those requiring consideration of multiple grammatical features, such as noun countability and subject-verb agreement, whereas lower-error items included those centered on a single feature. These findings can inform diagnostic activities and focused instruction in university TOEIC preparation and grammar courses, whil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item-level variation.

KEYWORDS

TOEIC Part 5, incorrect answer patterns, grammatical errors, university EFL learners, item-level variation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1. 서론

토익(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한국의 대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영어시험이다. 토익은 문어체적, 학술적 내용보다는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상황의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1982년 기업 시험에 첫 도입된 이후로 공·사기업, 공공기관, 국가공무원 취업,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에 필수적인 영어 시험으로 인정받고 있다[1]. 많은 대학들은 영어 전공 및 비전공자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 및 취업 대비를 위하여 토익 강의를 정규 수업, 클리닉, 비교과과정, 단기 영어캠프 등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졸업 요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강현숙 2021, 박현숙, 최미옥 2014, 윤소영 2023, 윤용배 2024). 학생들도 역시 토익 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익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이동명 외 2013).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토익 문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경아 2019). 토익 파트 5, 6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 문법 지식을 요하지만, 독해 위주의 수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배워왔기 때문이다(윤용배 2024). 또한, 7차 국가영어교육과정 개정 이후로 중고등학교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어수업으로 인해 명시적 문법 교육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지며(최미양 2015), 중등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상황 어휘와 문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토익 고득점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미양(2015)에 따르면, 토익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며, 문법 지식은 듣기, 독해 능력 향상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토익 문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어떤 문법 지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살펴본 기존 연구는 주로 영작문에 나타나는 문법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박혜경 2023, 손희정, 장우혁 2021, 이지연 2024, 이혜진 2017, 임경빈 2022, 한영주 2014, Koh 2026 등). 하지만 영작문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자신 없는 문법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회피 전략(avoidance strategy, Ellis 1994, Schachter 1974)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문법 범주의 실제 취약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최인희 2014, 손희정, 장우혁 2021). 반면에 토익 파트 5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객관식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특정 문법 범주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범주별 취약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익 파트 5의 문법 문항의 오답 양상을 여러 연도에 걸쳐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최미양(2015)에서는 토익 파트 5의 문법 오류를 분석하였으나, 한 학기 수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단일 학기 자료만으로는 관찰된 오답 양상이 특정 수강 집단에 국한된 것인지, 서로 다른 연도의 대학생 집단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 연도 집단에 동일한 문항을 반복하여 적용하면, 특정 집단에 국한된 양상과 서로 다른 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답 패턴을 구분하여 문법 진단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영작문 오류 분석에 집중되어 온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동일한 문법 문항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의 수행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법적 취약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확대할 수 있다.

[1] TOEIC 공식 사이트 (https://exam.toeic.co.kr/)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2022~2025년) 총 2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토익 리딩 수업에서 수집된 오답 제출 과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문법 범주별 오답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빈칸 채우기 문항으로 구성된 토익 파트 5이다. 학습자의 오류 분석은 교육 내용 및 교수 우선순위를 개선하고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Corder 1971, Ellis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상대적인 문법적 취약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 토익 및 영어 문법 수업의 교수 내용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2.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문법 오류

2.1 한국인 영어학습자 문법 오류 양상

언어 학습에서 오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고 학습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Brown 2014, Corder 1971). 영어학습자의 오류 분석은 효과적인 영어 교수학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전반적 오류(global error)”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그렇지 않은 “부분적 오류(local error)”에는 선택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Brown 2014). 본 절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법 범주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문법 오류 양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교 수업에서 수집한 영작문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해 왔다(김영자 2014, 박혜경 2023, 손희정, 장우혁 2021, 이경랑 2014, 이준용 2009, 이혜진 2017, 임정완, 최에레사 2008, 정연우, 유원호 2011, 최인희 2014, 한영주 2014, Ahn and Kang 2015). 이 외에도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자료의 문법 오류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손희정, 장우혁 2020). 영작문에 나타난 문법 범주 오류 연구는 구두점, 대소문자, 구어체 표현 등의 범주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정연우, 유원호 2011, 최인희 2014, 한영주 2014 등), 이 유형의 오류들은 토익 문법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므로 이하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영작문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는 관사/한정사, 동사형태 및 시제, 명사형태(어미) 등이 오류 빈도가 높은 범주로 보고되었다(이민정 2012, 최인희 2014, 한영주 2014, 손희정, 장우혁 2021). 이 범주들의 상대적인 순위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오류율 상위 1-5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각 연구들에서 범주 간의 상대 순위는 표 1에 나와 있다.

이 중에서 관사/한정사 관련 오류는 이 연구들 중 대부분에서 높은 순위(1-2위)로 나타나서 한국인 학습자의 영작문에서 가장 취약한 범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이민정 2012, 최인희 2014, 한영주 2014, 손희정, 장우혁 2021). 이민정(2012)에서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오류 태깅된 영작문 코퍼스를 구축하여 영작문 문법 오류 유형과 빈도수를 Ferris(2002)의 오류 분류 체계에 따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전체 오류 횟수 기준으로 한정사는 두 번째로 높은 오류를 보였다. 특히, 명사 어미보다 한정사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하위 그룹에서 한정사, 단/복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한영주(2014)는 대학생 32명의 영작문 과제의 문법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관사/한정사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예: I have no time to go to [a] language school, p.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534). 손희정과 장우혁(2021)은 대학생 80명의 영어 글쓰기 과제 오류를 6개의 문법 범주 및 45개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분석했다. 6개 범주 중 오류 건수는 명사구와 동사구에서 많았으나, 이는 두 범주의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이었으며, 각 범주의 사용 횟수 대비 오류율은 전치사구가 가장 높았다. 45개 하위 범주 중에서 오류율이 높은 순서는 동사구(시제와 상), 한정사(정관사 생략), 한정사(부정관사 생략), 전치사구(전치사 생략), 명사구(명사 형태) 등의 순서로, 한정사 생략이 2-3위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오류 건수는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생략 두 범주 합산 시 761건으로, 1위인 동사구(시제와 상) 오류 건수인 509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인희(2014)에서는 7년간 대학 일반영어 강의 수강생들의 영문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오류를 일반학습자 그룹 124명과 해외연수자 그룹 43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관사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형태 및 어미 관련 오류도 빈번한 오류 중의 하나이다(이민정 2012, 한영주 2014, 손희정, 장우혁 2021). 명사어미 관련 오류는 이들 연구에서 3-5위 정도의 빈도수 범위 내에서 발견되며 관사/한정사보다는 오류 빈도가 적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 관련 오류 중 빈번한 유형은 동사형태 및 시제 관련 오류들로,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관사/한정사 관련 오류가 1-2위의 순위에 나타난 반면, 동사형태 오류는 1-4위, 동사시제 오류는 1-5위 순위로 관사/한정사 오류보다 다소 낮은 순위까지 넓게 나타났다(이민정 2012, 최인희 2014, 한영주 2014, 손희정, 장우혁 2021). 동사형태는 이민정(2012)에서 가장 높은 오류를 보인 범주이며, 동사시제는 5위로 나타나서, 시제보다 형태 오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희(2014)에서도 동사구 관련 오류가 동사형태, 시제, 수일치, 태의 순의 빈도로 나타나서 시제보다 형태 오류가 많았다. 반면에 한영주(2014)에서는 시제 오류가 형태 오류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손희정, 장우혁(2021)에서는 동사구(시제와 상) 오류가 모든 세부 문법 오류 중 가장 높았다. 따라서 동사의 경우 시제, 형태 오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찰되었으며 다소간의 순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상위에 나타난 오류로는 전치사 오류가 있다. 전치사 생략 오류는 최인희(2014)에서는 2위, 손희정, 장우혁(2021)에서 동사구(1위), 한정사(2, 3위) 다음으로 4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인희(2014)에서는 전치사 삽입 및 전치사 오사용이 각각 6, 7위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2]. 한영주(2014)에서는 전치사 누락("I learned more [about] services") 및 첨가("attending [to]") 오류를 문장구조 오류의 한 종류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치사 오류를 동반하지 않은 채로 필수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가 누락된 오류도 많았다("I treat [you] to dinner" 한영주 2014, p. 541).

수일치 오류는 이민정(2012)에서는 3위, 최인희(2014)에서 일반학습자 그룹에서는 4위로, 해외연수자에서는 2위로 오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휘 선택, 구두점 사용 등을 제외한 문법 범주만의 순위에서 수일치는 한영주(2014), 손희정, 장우혁(2021)에서 7위의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 외로 표 1의 상위 7위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사와 접속사 관련 오류도 선행연구에서

[2] 최인희(2014)에는 어휘, 표현의 어색함, 구두점 및 대소문자 오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문법 범주 사이의 순위만 정리하였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보고되었다. 최인희(2014)에서 일반학습자 및 해외연수자에서 모두 관계사와 접속사 관련 오류의 순위가 낮았다. 최인희(2014)는 관계사 관련 오류가 적은 이유는 학습자들이 관계사를 잘못 쓸 것을 우려하여 쓰기를 회피하는 회피전략(avoidance strategy, Ellis 1994, Schachter 1974) 때문이며, 따라서 오류의 절대 빈도수가 반드시 난이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접속사 오류율도 해외연수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일반학습자들은 단문을 많이 써서 접속사를 덜 사용했기 때문이므로 회피전략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형용사, 부사 오류는 양쪽 그룹에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어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AI를 활용한 오류 분석 연구에서도 빈번한 오류의 범주가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이지연 2024, Koh 2026). 이지연(2024)은 대학생의 영작문과 AI 번역기인 DeepL을 활용하여 작성한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관사 및 한정사, 동사 형태(to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일치 등에서 오류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Koh(2026)는 대학생 77명의 영작문 초안과 ChatGPT를 활용한 수정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법 관련 수정에서는 관사·전치사·동사형태가 함께 빈번하게 수정된 유형으로 보고되었으며, 명사의 단·복수 형태를 수정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다만 이 연구는 문법 오류 외에도 어휘 선택, 문화적 명시화 등 다양한 수정 유형을 분석하므로, 그 빈도를 다른 연구의 문법 오류 순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문법 관련 오류의 수정 예시를 살펴보면 관사 삽입 또는 복수형 어미의 추가가 나타났다(meat pie → a meat pie, with meat and vegetable → with meat and vegetables) (p. 29). 관계사절을 사용한 수정의 경우 학습자들이 주로 단문을 쓰는 경향을 보였으며, ChatGPT가 이를 관계사를 사용한 복문으로 수정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Travelers should go Tokyo Tower. From there, they can see big city. → Travelers should visit Tokyo Tower, where they can enjoy views of the city.) (p. 31).

위의 연구들에 따르면, 영작문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사 및 한정사 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익 파트 5에서 관사 자체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항은 거의 없지만, 관사는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통사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의 빈칸이 “the ___ of”와 같은 형태라면 빈칸에는 명사가 정답이 되며, “the ____ effect”라면 빈칸은 관사와 명사의 사이 자리이므로 형용사가 정답이 된다. 한정사의 경우 소유격(his, her 등)이나 수량형용사(another) 등을 묻는 문항도 출제되므로, 관사와 한정사 체계에 대한 이해는 토익 파트 5 문항을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명사의 가산성을 잘못 파악하여 발생하는 단·복수 형태 오류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이민정 2012, 최인희 2014).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 중 부정관사와 복수명사를 함께 쓰는 오류가 있는데 한영주(2014, p. 539)에서 제시한 “a fire-fighting equipments” 같은 오류는 부정관사 뒤에 복수명사를 쓴 오류 및 가산·불가산 명사 오류(불가산 명사인 equipment를 복수로 사용한 오류)가 함께 나타난다. 즉,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한국어에 없는 가산·불가산 명사 사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 및 최근 AI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특정 문법적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영작문 오류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문법 문항에 응답하는 토익 파트 5 자료를 여러 연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영작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문법 구조의 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서로 다른 연도 집단에서 반복되는 문법 범주별 상대적 오답 양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있다.

2.2 토익 문법 문항의 오답 양상

영작문 문법 오류 분석에 비해 토익 문법 문항의 오답 양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영작문을 통한 문법 오류 분석은, 학습자가 영작문을 할 때 어려운 구문을 회피하여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류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Schachter 1974), 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한정된 수의 학습자 집단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도 있다(Ellis 1994). 또한, 영작문 오류 연구들은 문법 오류뿐만 아니라 철자, 구두점 등 문법 이외의 요소들을 다소 포함하기도 한다. 반면에 토익 문법 문항의 오답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특정 문법 구조를 회피할 수 없고, 여러 문법 범주에 걸친 오답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토익 문법 문항의 오답 양상을 분석한 최미양(2015)의 연구에서도 영어학습자 오류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영작문 또는 발화상의 오류를 참고하고 있다.

서연주와 김채은(2024)은 토익 파트 5 기출 문제 870문항을 분석하여 토익 문법 문항의 출제 범주를 확인하였다. 문법의 하위 범주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과 유럽 연합 공통언어 표준 등급의 영문법 개요(CEFR EGP)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토익 문법 범주는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학습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익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토익 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토익 문법 오류를 분석한 연구로는 최미양(2015), 윤소영(2023)이 있다. 윤소영(2023)에서는 교양영어 토익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공통적으로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 풀이 및 설명을 제시했으며, 또한 토익 수업에 대한 학습 방법 및 인식 조사 설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질문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꼼꼼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문장의 뜻을 대략 파악하는 수준으로, 문법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문법 범주별 오답에 대한 양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최미양(2015)은 토익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단원에 나오는 토익 파트 5 문법 문제(단원별 12개씩)의 오답을 분석하였다. 교수자는 해당 수업 시간에 총 10개의 단원에 대해 학생들이 문법 문제를 풀게 한 후, 12개 문제 중 틀린 문제 번호를 제출하게 했다. 각 문법 영역에서 전체 평균 이상의 오류 비율을 보인 문항의 수를 해당 영역의 전체 문항 수로 나누어 영역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 비율은 수일치, 시제, 동사원형, 접속사 등의 순으로 높았다(표 1). 오류 비율이 높은 문제 유형은 주격보어 형용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대명사, 목적격보어 현재분사, 수의 일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사와 동사에서는 사람명사/일반명사 구별, 조동사 뒤 동사원형, 제안/요구 동사 뒤 동사원형 등의 순으로 오류 비율이 높았다. 형용사와 부사 문제에서는 주격보어 형용사, 동명사 수식 부사, 부사구 수식 부사의 순으로 오류 비율이 높았다.

표 1에서는 2.1절의 영작문 오류 연구와 본 절의 토익 문법 오답률 연구(최미양 2015)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7위까지 요약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의 영작문에서는 주로 관사/한정사, 문장구조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동사시제와 동사형태는 연구에 따른 차이가 많으며 오류율이 상·하위에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고르게 분포하였다. 수일치 오류는 최인희(2014)에서는 중간 이상, 한영주(2014), 손희정과 장우혁(2021)에서는 낮은 순위의 오류율을 보였다. 접속사 오류는 표 1에 제시한 영작문 연구들의 상위 7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토익 파트 5 오답률 순위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수일치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 동사시제와 형태가 그다음으로 높았으며, 접속사 오답률도 동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작문 오류 연구에서 순위 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사, 도치 범주도 토익 문항의 오답률 순위에는 나타났다.

표 1. 영작문 오류와 토익 문항 오답의 문법 범주별 순위 비교 (내림차순 1~7위)[3]

영작문				토익 파트 5
이민정(2012)	최인희(2014)[4]	한영주(2014)	손희정, 장우혁(2021)	최미양(2015)[5]
동사형태	관사	관사/한정사	동사시제와 상	수일치
한정사	전치사 생략	문장구조	정관사 생략	동사시제
수일치	동사형태	동사시제	부정관사 생략	동사원형
명사어미	수일치	동사형태	전치사 생략	접속사
동사시제	동사시제	명사어미	명사형태	부사, 수동태, 도치
	전치사삽입	대명사	동사be생략	대명사, 분사
	전치사오사용	수일치	수일치	명사 등

종합해보면, 영작문의 오류와 토익 파트 5의 오답 양상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어느 정도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영작문에서는 관사와 한정사 오류가 대체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에 토익에서는 수일치 오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작문에서 수일치 오류는 한영주(2014), 손희정과 장우혁(2021)에서는 낮게 나왔고, 토익에서 접속사 오답률은 네 번째로 높았으나 표 1에서 제시한 영작문 오류 연구에서는 순위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토익에서는 영작문 오류 연구에서 높은 순위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사, 도치, 분사 범주도 오답률 상위에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회피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영어학습자들이 영작문을 할 때 본인에게 어려운 구조를 회피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던 문법 취약점들을 토익 오답 분석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토익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수일치 범주는 주어에 관계대명사절 등 긴 수식어가 붙을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학습자들이 영작문을 할 때에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선호하지 않아서 수일치 오류도 높은 순위보다는 중간(이민정 2012, 최인희 2014) 또는 낮은 순위(손희정, 장우혁 2021, 한영주 2014)에 나타났다. 접속사의 경우도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단문을 쓰는 경향이 많아서 접속사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최인희 2014) 그로 인한 오류도 높게 나오지 않은 반면, 토익의 경우는 접속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취약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토익 문법 문항의 오답 양상을 분석하면, 그간의 영작문 오류 분석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법 취약점도 다양한 범주에 걸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법 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3] 표 1의 영작문 오류 순위는 각 연구들에서 어휘 선택, 구두점, 철자 등 문법 외 오류들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문법 범주만을 대상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4] 최인희(2014)의 일반학습자 기준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5] 최미양(2015)의 순위는 해당 논문의 표 11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익 파트 5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문법 범주별 오답률은 어떠한 상대적 양상을 보이는가(연구문제 1)? 둘째, 2022~2025년의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오답률을 보이는 문법 범주는 무엇인가(연구문제 2)? 셋째, 토익 파트 5에서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문항들은 어떠한 문법적 특징을 가지는가(연구문제 3)? 연구문제 1이 4개년 자료를 통합하여 문법 범주별 오답률의 상대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연구문제 2는 동일한 문항을 사용한 서로 다른 연도 집단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연도 집단에 의해 나타난 일시적 결과와 여러 연도에 걸쳐 반복된 기술통계적 경향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문항은 전체 120문항의 4개년 평균 오답률 상·하위 각 10문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2022~2025년 4년간 총 220명의 토익 리딩 수강생들의 토익 오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과 2는 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문제 3은 양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답률 상·하위 문항의 특징을 검토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학기에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진 <토익리딩1> 수업을 수강한 학생 중 외국인 15명을 제외한 한국인 학생 220명이며, 그 구성은 표 2와 같다(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문법 이해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강 학생 중 외국인 학생들의 과제 제출물은 제외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학생 구성

연도	인원수	비율(%)	성별	인원수	비율(%)
2022	56	25.5	남	107	48.6
2023	56	25.5	여	113	51.4
2024	54	24.5			
2025	54	24.5			
학년	인원수	비율(%)	전공	인원수	비율(%)
1	9	4.1	경영경제, 상경대학	56	25.5
2	15	6.8	사회과학, 법과대학	44	20
3	36	16.4	공과대학	41	18.6
4	158	71.8	SW융합대학	32	14.5
5	2	0.9	음악, 예술대학	25	11.4
			문과대학	15	6.8
			사범대학	5	2.3
			국제대학	2	0.9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3.2 문법 범주 및 연구 방법

수업에서 사용한 교재는 <토익 정기시험 RC 기출입문서>(ETS 2021)이다. 수업은 사전녹화 동영상 강의와 온라인 과제로 이루어진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과제는 정해진 범위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오답 번호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러닝 캠퍼스에 교수자가 만들어 놓은 설문지 양식에 본인이 틀린 문항의 번호를 표시해서 제출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한 내에 제출만 하면 틀린 개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고 공지하여 학생들이 오답 번호를 솔직하게 제출하도록 독려하였다. 본 연구의 문법 분석 대상 범주는 표 3에 제시한 교재의 단원들이다.

표 3. 연구 대상 문법 범주

단원	문법 범주
Unit 1	문장 구조
Unit 2	명사
Unit 3	대명사
Unit 4	형용사와 부사
Unit 5	비교
Unit 6	동사의 형태와 수 일치
Unit 7	시제
Unit 10	분사
Unit 11	전치사
Unit 12	등위 접속사와 명사절 접속사
Unit 13	부사절 접속사
Unit 14	관계사

각 단원마다 있는 ‘ETS 실전 테스트’를 풀고 틀린 문제의 번호를 학교 이러닝 캠퍼스를 통해서 제출하게 하였다. 실전 테스트는 파트 5 10문항, 파트 6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 5 10문항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문항 수는 총 120문항이다(12개 단원 × 10문제 = 120문제). 능동태와 수동태(Unit 8)와 to부정사와 동명사(Unit 9) 단원은 중간고사 기간 중에 과제를 내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교재가 입문서라서, 가정법과 도치, 복합관계대명사 같은 고난이도 문법 단원은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으며, 이러한 문법 범주가 제외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각 범주마다 10문제씩 동일하게 분석하는 것은 영작문 문법 오류 분석에서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어려운 문법을 피해서 쉬운 문장을 써서 오류를 피한다면 해당 문법 오류를 측정할 수 없을 것이고(Schachter 1974), 단순히 오류 개수만 센다면 사용 빈도 자체가 높은 문법 범주가 오류율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손희정, 장우혁 2021). 반면에, 본 논문에서처럼 토익 문법 범주별로 오답률 분석을 하면 각각의 문법 범주를 통제된 조건하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통계 분석은 Jamovi(2.6.45.0)와 R Studio(2026.05.1.+225)를 사용했고, 추론통계는 R에서 lmerTest 패키지(Kuznetsova et al. 2017)를 사용했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4. 연구 결과

4.1 문법 범주별 오답률

4.1.1 범주별 평균 오답률

본 절에서는 기술통계로 범주별 평균 오답률을 제시하고 추론통계로 범주의 효과에 대한 혼합모형 결과를 제시한다. 아래의 표 4와 그림 1은 문법 단원별로 10개씩의 문항에 대한 4개년간 평균 오답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문항별 4개년 평균 오답률은 문항별로 각 연도별 오답률(오답 학생 수/과제 제출한 전체 학생 수)의 4개년 평균이며[6], 문법 범주별 4개년 평균 오답률은 해당 범주에 속한 모든 문제의 연도별 오답률의 평균이다. 본 연구의 문항에서 기술통계상 평균 오답률이 가장 높은 범주는 문장의 구조이며, 그다음으로 명사, 동사 형태와 수일치, 대명사 등의 순이었고, 평균 오답률이 가장 낮은 범주는 비교이며, 그다음으로 형용사와 부사,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 등의 순이었다. 전체 오답률 평균은 12.7%였다. 이는 최미양(2015)의 토익 파트 5 평균 오류 비율(16.8%)보다 다소 낮은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입문서 교재라 고난이도 문법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 문법 범주별 오답률 (4개년 평균)

범주	평균 오답률(%)	표준편차
문장의 구조	17.7	15.3
명사	14.6	11.8
동사형태·수일치	13.3	7.3
대명사	13.3	9.2
등위·명사절 접속사	13.0	6.8
분사	12.6	6.4
시제	11.9	6.5
관계사	11.8	7.1
전치사	11.7	7.4
부사절 접속사	11.3	5.8
형용사와 부사	11.1	6.4
비교	10.5	5.2

그림 1은 범주별 평균 오답률을 내림차순으로 제시한다. 각 범주마다 10개의 문항들 각각의 평균 오답률(4개년 평균)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 오답률(점선)보다 높은 문항은 빨간색으로, 그보다 낮은 문항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장의 구조 범주의 경우에 범주의 평균 오답률(17.7%)이 파란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점선)보다 오답률이 높은

[6] 예를 들어 1단원 1번 문제의 오답률은 2022년(4/56=7.14%), 2023년(2/56=3.57%), 2024년(2/53=3.77%), 2025년(2/52=3.85%)이며, 4개년 평균 오답률은 각 연도 오답률의 산술평균인 4.58%로 산출하였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문제는 4문제(빨간 점)이다. 나머지 6문제(녹색 점)는 모두 평균 오답률보다 낮게 나와서, 문장의 구조는 문항 간 편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평균 오답률이 50%가 넘는 이상치를 포함하여 오답률이 제3사분위를 초과한 문항이 3문항 있다. 즉, 대부분 문항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오답률을 보였는데, 특별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해당 범주의 평균을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은 명사 범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오답률이 가장 낮은 비교 범주의 경우에도 오답률이 제3사분위수 이상인 문항들이 3개 있으나,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서 문항 간의 오답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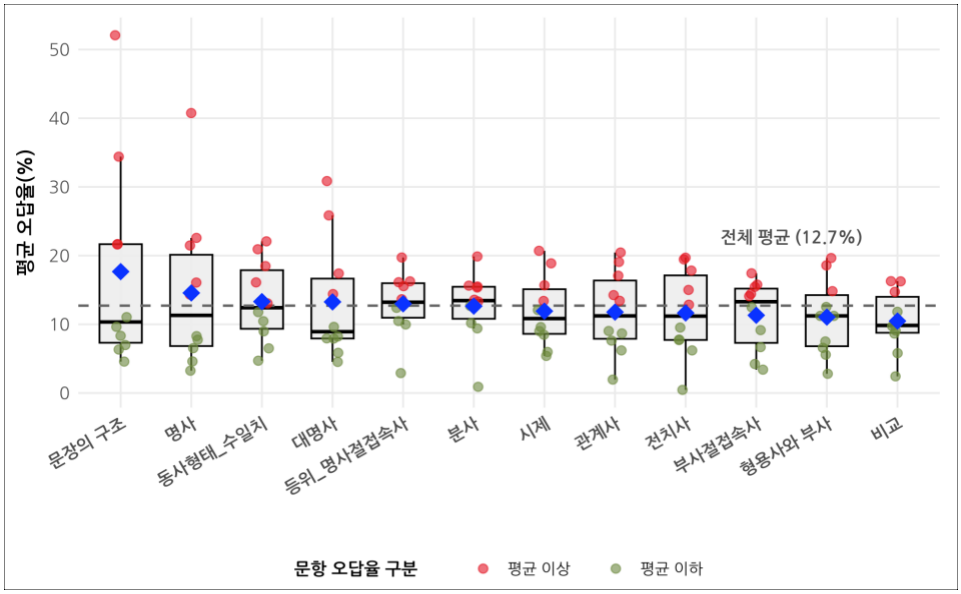


그림 1. 범주별 오답률 (점선: 전체 평균 오답률, 파란 점: 범주별 평균 오답률, 빨간 점: 전체 평균 이상 오답률 문항, 녹색 점: 전체 평균 이하 오답률 문항)

본 연구에서 문항은 문법 범주에 완전히 귀속되어(nested) 있으므로, 범주의 효과와 문항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범주 내에서 문항별로 오답률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항별 변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범주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오답률을 종속변수, 문법 범주를 고정효과, 문항과 연도를 랜덤효과로 하여 선형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법 범주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된 요인이므로 고정효과로 하였으며, 개별 문항의 오답률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문항을 랜덤효과로 혼합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연도 간의 차이는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므로 연도를 랜덤효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수강 학생 집단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도별 변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법 범주에 따른 오답률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도와 문항 랜덤효과를 모두 고려한 결과, 범주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chi^2(11) = 6.97$, $p = .802$). 이는 문항별 변이를 통제한 후에는 범주 수준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비교를 위한 보조 분석으로, 문항 랜덤효과를 제외하고 연도 랜덤효과만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문법 범주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11) = 23.8$, $p = .016$). 연도 랜덤효과만 포함한 보조 모형은 문항별로 나타나는 오답률 변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반면 문항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랜덤효과를 함께 포함한 모형에서는 동일 범주 내의 문항별 변이가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제한 후에는 범주 효과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문항 랜덤효과를 포함한 모형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한 결과, 문항 랜덤효과를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chi^2(1) = 296.86$, $p < .0001$). 이는 오답률 분석에서 문항 수준의 변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항별 변이를 통제한 모형을 주 분석 결과로 해석하였다. 연도만 포함한 보조 모형에서 나타난 유의한 범주 효과를 범주 자체의 일반적인 난이도 차이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범주 내 문항 간 차이는 최미양(2015)에서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형용사와 부사' 범주에서 '주격보어로 사용되는 형용사' 유형의 오답률은 65%였던 반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유형의 오답률은 0%였다. 이러한 범주 내 차이를 고려할 때, 범주별 오답률 결과는 문항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답률이 특히 높은 소수 문항에 의해 범주 평균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높은 오답률이 소수 문항에 집중되는지 또는 범주 내 여러 문항에 걸쳐 나타나는지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4.1.2절에서는 최미양(2015)에 따라 평균 오답률 이상 문항의 개수를 분석하였다. 오답률이 특히 높거나 낮은 개별 문항의 특성은 4.2절에서 별도로 분석한다.

4.1.2 전체 평균 오답률 대비 이상·이하 오답률 문항 개수 분석

4.1.1절에서 살펴본 범주의 평균 오답률은 범주 내 문항들의 오답률 수준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지만, 오답률이 특히 높은 일부 문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오답률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이 소수 문항에 집중되는지 또는 범주 내 여러 문항에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평균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장의 구조의 경우 소수의 문제가 높은 오답률을 보임으로 인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오답률을 보인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최미양(2015)에 따라 각 범주에서 전체 평균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와 낮은 문제의 개수를 파악하여 보조적 기술지표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이 소수 문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는 범주 내의 여러 문항에 걸쳐 나타났는지 알 수 있다.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냈다. 그림 2에서는 평균 오답률 이상 문제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묶음 안에서는 범주별 평균 오답률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에 따르면, 전체 평균 오답률 이상의 문제의 개수가 가장 높은 범주는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이며, 가장 낮은 범주는 형용사와 부사, 비교이다. 앞 절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오답률이 낮은 범주는 여전히 형용사와 부사, 비교로 변화가 없는데, 오답률이 높은 범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그림 2에서 평균 오답률 이상 문제의 개수가 가장 많은 범주인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는 그림 1의 평균 오답률에서는 각각 5, 6번째였다. 이는, 그림 1의 평균 오답률 1~4위 범주들이 오답률이 제3사분위수 이상인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평균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림 2는 소수 문항에 집중된 높은 오답률과 구분된, 평균 이상 오답률을 보인 문항의 범주 내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등위·명사절 접속사 및 분사 문제에는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그림 1에서 평균 오답률이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높았던 범주들 중 명사, 동사형태·수일치 등의 경우는, 평균 이상 오답률 문항 수도 5개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장의 구조, 대명사는 평균 오답률 이상 문항 개수는 4개로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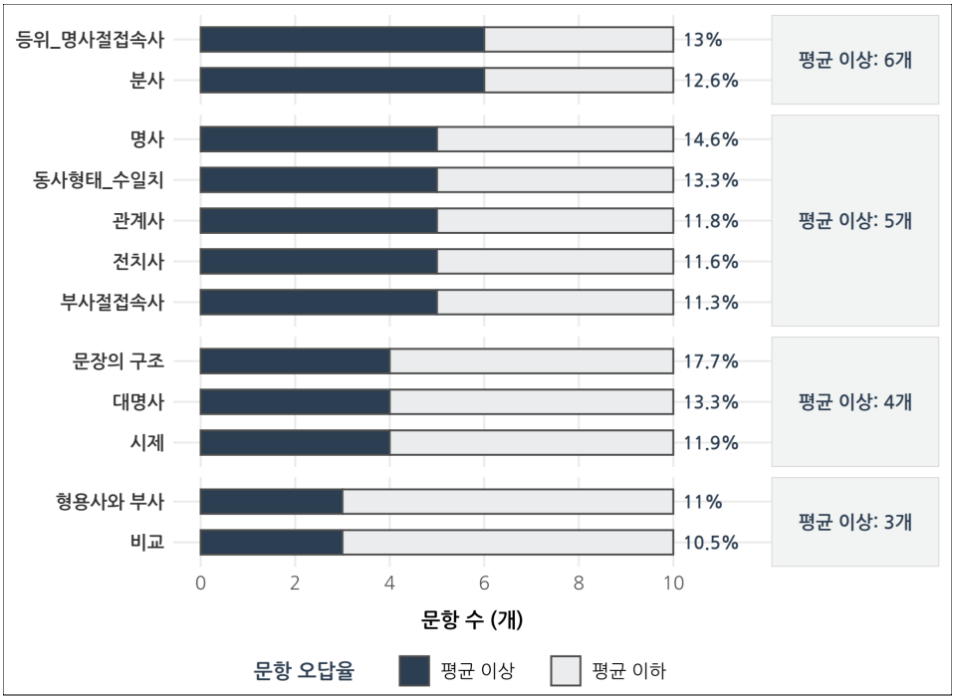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평균 오답률 이상·이하 문항 개수 (검정색: 평균 이상 문제 개수, 회색: 평균 이하 문제 개수, 막대 우측%: 그림 1의 범주별 평균 오답률)

본 절의 결과를 요약하면,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 범주에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이들 범주에서 비교적 높은 오답률이 소수 문항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문항에 걸쳐 나타난 기술통계적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항별 변이를 통제한 혼합모형에서는 범주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를 문법 범주 자체의 일반적인 난이도 차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1.3 연도별 오답률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서로 다른 학생들로 구성된 4개 수업에서 수집한 오답률을 분석하였다. 매해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였므로 동일 집단의 문법 능력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도별 상승이나 하락을 문법 능력의 변화로 해석하지 않고, 서로 다른 연도 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또는 낮은 오답률의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각 연도마다 범주별 오답률을 해당 연도 전체 120문항의 평균 오답률과 비교하여, 각 범주의 오답률이 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오답률을 보인 범주와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오답률을 보인 범주를 확인하였다.

그림 3에서 문법 범주는 4개년 평균 오답률의 내림차순으로 제시하였다(4.1.1절 그림 1과 동일한 순서). 점선은 각 연도 전체 120문항의 평균 오답률을, 실선은 각 문법 범주의 연도별 평균 오답률을 나타낸다. 실선은 각 범주의 연도별 평균값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해 연결하였다. 각 연도 전체 120문항의 평균 오답률은 2022년 12.5%, 2023년 13.3%, 2024년 13.4%, 2025년 11.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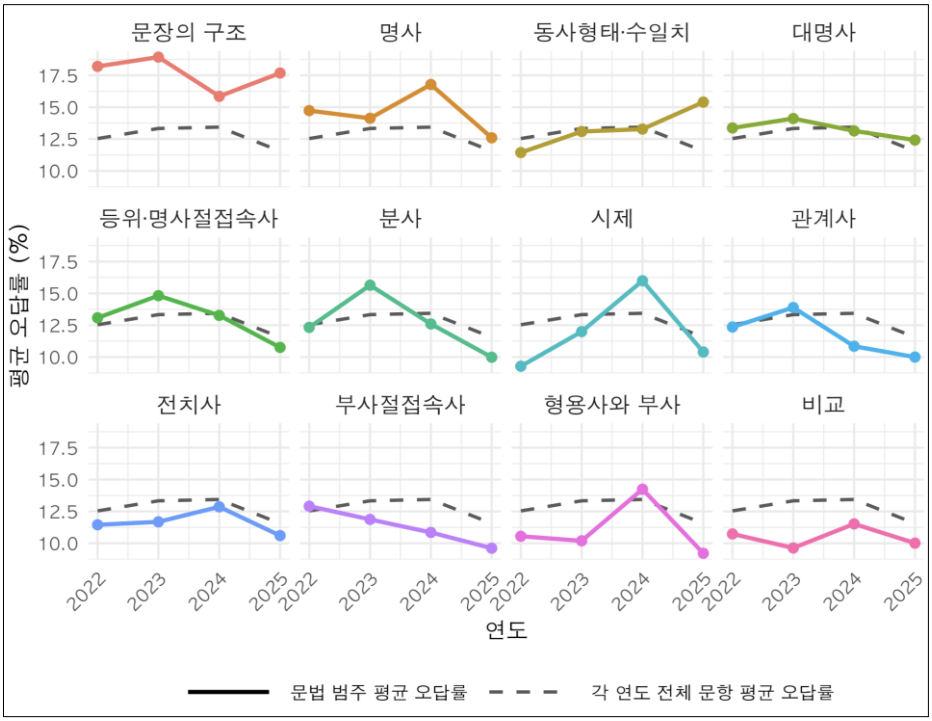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문법 범주 오답률과 전체 문항 평균 오답률 비교

그림 3에 따르면, 문장의 구조와 명사 범주는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120문항 평균보다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반면 전치사와 비교 범주는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오답률을 보였다. 나머지 범주들은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서로 다른 연도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기술통계적 경향으로, 동일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나 문법 범주 자체의 일반적인 난이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4.2 문제 분석

4.2.1 평균 오답률 상·하위 10개 문제 분석

본 절에서는 전체 120문항의 4개년 평균 오답률을 산출한 후, 상·하위 각 10문항을 선정하여 문법적·구조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상·하위 각 10문항을 선정한 것은 상대적 대비가 뚜렷한 양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극단의 문항을 비교하면서도 문항별 질적 분석이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특징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법 범주에서도 문항의 구조와 문맥에 따라 오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5는 오답률 상위 10문제의 범주, 문제 번호7, 평균 오답률 및 관련 세부 문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틀린 문항의 번호만 수집하고 선택지별 응답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된 오답이나 그 선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은 각 문항의 정답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문법적·구조적 특징과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유사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표 5. 오답률 상위 10문제

순위	범주	문제 번호	평균 오답률(%)	관련 세부 문법
1	문장의 구조	1_6	52.1	명사 (가산/불가산) advances
2	명사	2_2	40.8	명사 (가산/불가산) approaches
3	문장의 구조	1_8	34.4	문장 중간 명령문
4	대명사	3_8	30.8	those (~하는 사람들)
5	대명사	3_4	25.8	all (단독 주어)
6	명사	2_9	22.6	명사 (가산/불가산) management
7	동사의 수일치	6_5	22.1	주어+[수식어]+동사
8	문장의 구조	1_7	21.7	동사 앞 수식 부사
9	문장의 구조	1_5	21.6	be동사 뒤 형용사/분사형 형용사 구분
10	명사	2_5	21.5	every + 단수명사

오답률 상위 10문항에 가장 많이 포함된 범주는 문장의 구조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명사, 대명사, 수일치였다. 문장의 구조 범주는 교재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서로 다른 문장 구조를 함께 다루는 단원이며, 상위 10문항 중 4문항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평균 오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2문제는 가산/불가산 명사와 관련된 문제이며, 다음과 같다.

(1) [1_6] ___ in medical technology have allowed doctors to diagnose illnesses with greater accuracy.
(정답: Advances) (p. 36)[8]

(2) [2_2] [...] Corporation has adopted innovative marketing ___ for its latest products
(정답: approaches) (p. 48)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1)의 경우는 문장의 구조 단원에 나오지만, 세부적으로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인 명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선택지에는 advances와 advancement라는 두 개의 명사가 있었으나 뒤따르는 have와 수일치하기 위해서는 가산명사 advance의 복수형인 advances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항은 품사뿐만 아니라 명사의 단·복수 형태와 주어-동사 수일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동사와 명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advance와 달리, advancement는 영어에서 빈도가 높은

[7] 각 단원마다 1~10번까지의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 간의 구분을 위해서 이하에서 제시되는 문제 번호는 단원과 해당 단원 실전 테스트의 문제 번호를 연결하여 나타냈다. 즉 “1_1”이라면 1단원의 실전 테스트 1번 문제를 의미한다.

[8] 이하 예문들 끝의 페이지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를 의미한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명사 파생 접미사 -ment가 결합된 형태이므로(Bauer and Nation 1993, Park 2011), 명사임이 형태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2)도 명사 관련 문제이며, 주어진 명사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를 알고 있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다. 즉, approach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 추상명사라서 불가산명사로 생각했다면 틀리게 된다. 명사의 가산성을 잘못 파악한 단·복수 형태 오류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작문에서도 과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이민정 2012, 최인희 2014, Koh 2026 등), 본 연구의 토익 문법 문제에서도 명사의 가산성과 관련된 취약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1), (2)는 가산명사(advances, approaches)의 복수형이 답인 반면, 문제 (3)의 정답은 불가산명사 management이다.

(3) [2_9] [...] has just been appointed to a prestigious position in ___ at Cardero Advertising.
(정답: management) (p. 48)

문제 (3)의 빈칸 앞에는 “a prestigious position in”이 제시되어 있고, 선택지에는 관리자를 나타내는 명사 manager와 업무 영역을 나타내는 불가산명사 management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직책을 뜻하는 position과 관리자를 뜻하는 manager는 의미적인 관련성(semantic relatedness)을 가지고 있다. 의미적으로 관련된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distractor)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Ludewig, Schwerter, and McElvany 2023)을 고려하면, 이 문항에는 문장의 의미와는 관련되지만 문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인 manager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Manager는 가산명사라서 한정사 없이 단수로 쓸 수 없으므로 이 문맥의 빈칸에는 올 수 없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의 의미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명사의 가산성과 통사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면, 오답률 상위 10개 중 3문제는 가산/불가산 명사에 대한 문제로 영작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명사 가산성 관련 어려움이 본 연구의 토익 문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오답률이 세 번째로 높은 문제인 (4)의 경우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시작하고, 문장의 중간에서 명령문이 시작되는 구조이다.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와 뒤따르는 명령문의 구조를 구분하고, 명령문의 동사원형을 선택해야 한다. (5)는 동사 앞에 부사, (6)은 be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를 넣는 문제이다. (6)의 선택지에는 impressive와 형태적으로 관련된 impressed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be동사 뒤 주격보어 자리에서 주어의 의미와 문맥에 적절한 형용사 impressive를 선택하고, 형태적으로 관련된 impressed와 의미 및 쓰임을 구별해야 한다.

(4) [1_8] To secure the floorboards to the porch framing, ___ large decking screws spaced at 12-inch intervals.
(정답: use) (p. 36)
(5) [1_7] As the audience ___ waited for the actor [...] (정답: expectantly) (p. 36)
(6) [1_5] The range of research studies presented on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was very ___.
(정답: impressive) (p. 36)

최인희(2014)의 영작문 오류 분석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는 오류 빈도가 가장 낮은 범주에 속했으나, 최미양(2015)의 토익 오류 분석에서는 부사가 18개 범주 중 5위, 형용사는 7위로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오류율이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미양(2015)의 전체 분석에서 오류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 유형은 주격보어 형용사였으며(65%), 해당 문항은 be동사 구문인 has been 뒤에서 주격보어 형용사 decisive를 선택하는 문제였다. 학생들은 decided를 많이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 has been을 수동태로 해석한 점과 decisive의 의미를 알지 못한 점이 보고되었다(최미양 2015). 본 연구의 (6)도 be동사(was) 뒤에서 형용사와 과거분사가 선택지로 함께 제시되어, 주격보어 자리에 문맥상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항과 유사하다.

문제 (7)-(8)은 대명사 문제이다. (7)은 대명사 문제 중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명사 those를 묻는 문제이며, (8)은 all이 수량형용사일 뿐만 아니라 단독 주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즉, 대명사들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7) [3_8] Ms. Lu's administrative assistant will mail a copy of the annual report to ____ who cannot attend the meeting.

(정답: those) (p. 60)

(8) [3_4] Although employee participation [...] is strictly voluntary, ____ are encouraged to join in.

(정답: all) (p. 60)

문제 (9)는 동사의 수일치 문제인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needed to ... materials")가 있어서 이를 제외한 주어 명사를 찾아서 수일치가 된 동사를 골라야 하는 문제이다.

(9) [6_5] The time needed to acquire all of the necessary materials ___ on several factors.

(정답: depends) (p. 92)

표 6은 오답률이 낮은 하위 10문제를 오답률이 낮은 순으로 보여준다. 표 5의 오답률 상위 10문제들이 4개 범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범주(9개)에 골고루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6. 오답률 하위 10문제

순위	범주	문제 번호	평균 오답률(%)	관련 세부 문법
1	전치사	11_1	0.45	장소 전치사 at
2	분사	10_1	0.9	과거분사 보어(is limited)
3	관계사	14_1	1.95	주격관계대명사
4	비교	5_1	2.42	비교급
5	형용사와 부사	4_1	2.8	명사 수식 형용사
6	등위·명사절 접속사	12_1	2.9	Both A and B
7	명사	2_1	3.25	The ___ of
8	부사절 접속사	13_2	3.4	because (이유)
9	부사절 접속사	13_1	4.23	as (이유)
10	대명사	3_1	4.52	소유격

오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3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10) [11_1] The Southeast Accounting Conference will be held _____ the Valmor Convention Center.
(정답: at) (p. 148)

(11) [10_1] Since storage space is _____, all employees are asked to discard unwanted items.
(정답: limited) (p. 136)

(12) [14_1] Mr. Martinelli, _____ started as a stock clerk and is now vice president of marketing, will retire in May.
(정답: who) (p. 184)

가장 오답률이 낮았던 문제는 장소 앞에 전치사 at을 쓰는 문제로 오답률이 1%가 안 되었다. 그다음으로는 문제 (11)로, 수동태를 만드는 과거 분사 limited를 넣는 문제였다. 문제 (11)은 위의 문제 (6)과 대비되는데, 즉 be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답인 (11)이 형용사가 답인 (6)보다 오답률이 낮았다. 사람 이름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who)를 넣는 문제 (12)도 오답률이 낮았다.

표 6에서 4순위로 오답률이 낮은 문제는 비교급(more accurate) 문제로, 비교 범주의 평균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4.1절의 기술통계 결과와 일치한다. 명사 앞 자리에 형용사(different strategies)를 넣는 문제인 (13)과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에서 and를 찾는 문제도 오답률이 매우 낮았다. 관사와 전치사 사이에 명사를 넣는 문제, 이유의 부사절 접속사(because, as), 그리고 소유격(her)을 넣는 문제도 오답률 하위 10문제에 포함되었다.

(13) [4_1] Ms. Hirai and Ms. Byrd have _____ strategies for conducting consumer research.
(정답: different) (p. 70)

오답률 상·하위 각 10문항들을 살펴보면, 같은 범주에 속한 문항 사이에서도 오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같은 명사 범주에서도 오답률이 7번째로 낮은 문제인 (14)와 두 번째로 높은 문제인 (15)가 있다.

(14) [2_1] The _____ of the deadline allowed the Tobin Group to finish its proposal on time.
(정답: extension) (p. 48)

(15) [2_2] Valgor Corporation has adopted innovative marketing ____ for its latest products.
(정답: approaches) (위 (2)번 반복) (p. 48)

즉, (14)는 관사와 전치사 사이라는 전형적인 명사의 자리에 명사를 넣는 문제이며, 동사가 과거시제(*allowed*)라서 주어와의 수일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항이다. 반면에 (15)는 가산명사 approach의 복수형을 넣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수일치 문제도 문항에 따라 오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16)은 주어가 짧은 명사구인 반면, (17)은 주어(*time*)와 동사 사이에 다른 명사(*materials*)가 포함된 수식어구(*needed to acquire all of the necessary materials*)가 있다. 같은 수일치 범주라도, (17)은 상위 7번째, (16)의 경우는 평균 오답률 4.7%로 전체 120개 문제 중 오답률 순위 108위로 하위권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다른 명사가 개입할 경우 그 명사의 수에 영향을 받아 수일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박분주, 권영수 2015).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16) [6_1] The current system ____ users to access their online banking accounts by entering a password.
(정답: allows) (p. 92)

(17) [6_5] The time needed to acquire all of the necessary materials ___ on several factors.
(정답: depends) (위 (9)번 반복) (p. 92)

따라서 범주별 평균 오답률은 본 연구 자료에서 문법 범주별 상대적 양상을 보여주는 기술통계 지표이다. 그러나 문항별 변이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범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문법 범주 자체의 일반적인 난이도 차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동일한 문법 범주 내에서도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개별 문항의 문장 구조나 의미적·문맥적 특성에 따라 오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범주별 결과는 이러한 문항의 유형과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오답률 상위 10문제가 가장 많았던 범주는 문장의 구조, 명사, 대명사, 수일치였으며, 하위 10문제는 전치사, 분사, 관계사 등 좀 더 다양한 범주에 분포했다.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 3문제가 가산/불가산 명사에 관련된 문항이었다. 문장 중간에 명령문이 오는 구조, 개별 대명사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문제, be동사 뒤 형용사,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다른 명사가 포함된 긴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의 수일치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다. 오답률이 낮은 문제는 장소의 전치사, be동사 뒤 과거분사, 주격관계대명사, 비교, 상관 접속사(both A and B)와 부사절 접속사(이유) 등에 분포했다.

4.2.2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 범주의 문항 분석

4.1.2절의 분석 결과,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는 각 범주의 10문항 중 6문항이 전체 120문항의 평균 오답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이상 문항이 가장 많이 포함된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범주 자체가 다른 범주보다 일반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본 연구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이 소수 문항에만 집중되지 않고 범주 내 여러 문항에 분포한 기술통계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항 수 분석을 보완하고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동일 범주 안에서도 문항의 문법적·구조적 특징에 따라 오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범주의 4개년 평균 오답률 상위 3문항과 하위 3문항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범주별 10문항 전체를 상세히 논의하기보다 상대적 대조가 분명한 상·하위 문항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각각 3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7과 표 8은 각각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 범주에서 오답률 상위 3문항과 하위 3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7의 등위·명사절 접속사 범주에서 오답률 상위 3문제는 의문사+to부정사 구조, 등위 접속사(but), 명사절 접속사 that이었다. 12_4번 문제의 경우는 의문사+to부정사 구조 중에서도 복합적인 형태인 whether or not이 사용된 문항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19.7%). 12_8번 but의 오답률도 높게 나왔다(16.3%). 최미양(2015)에서도 but의 오류율이 28%로 나타나, 등위 접속사 but에서 비교적 높은 오류율이 보고된 바 있다. 12_10번은 remind + 목적어 + that절의 수동태형인 be reminded that의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반면에 오답률 하위 3문제에는 consider와 find out 뒤의 명사절 접속사를 묻는 문제와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를 묻는 문제가 포함되었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표 7. [등위·명사절 접속사] 오답률 상·하위 각 3문제

순위	번호	오답률(%)	관련 세부 문법	문장 (p. 160)
1	12_4	19.7	의문사+to부정사	..final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hire Ms. Johnson..
2	12_8	16.3	등위 접속사	Currently, Skypoint Fashions does not have any vacancies, but the company expects to be hiring later this year.
3	12_10	16.1	명사절 접속사 that	Clients are reminded that the law offices will be..
8	12_2	10.5	명사절 접속사 that	.. considering that he was only twenty-six at the time.
9	12_7	10.0	명사절 접속사 whether	..is to find out whether our performance meets..
10	12_1	2.9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	Both Ms. Liu and Ms. Schults are attending ..

표 8. [분사] 오답률 상·하위 각 3문제

순위	번호	오답률(%)	관련 세부 문법	문장 (p. 136)
1	10_10	19.9	수동 분사구문	Opened just six months ago, ...
2	10_2	15.6	명사수식 분사	Revised employment contracts will be distributed..
3	10_8	15.5	접속사+분사구문	When removing the lamp from the carton, slide it..
8	10_3	10.2	명사수식 분사	.. is seeking interested individuals to participate..
9	10_4	9.4	주격보어 분사	...has left the design staff feeling exhausted.
10	10_1	0.9	주격보어 분사	Since storage space is limited, ...

표 8은 분사 범주의 오답률 상·하위 각 3문제를 보여준다. 수동 분사구문 및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이 각각 오답률 상위 1, 3위로 높게 나왔다. 최미양(2015)과 비교해보면, 분사구문 중에서도 접속사+과거분사 형태의 오답률이 다른 분사구문들보다 높게 나온 점이 본 연구와 유사하다. 이 두 문제 모두 주절 앞에 위치한 분사구문의 문제였는데, 최미양(2015)에서도 이러한 구조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답률 2위 문제는 주어 자리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였다. 오답률 하위 3문제(8~10위)를 살펴보면, 명사(individual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feel의 보어가 되는 분사, be동사 뒤의 과거분사 문제들이다. 10_2와 10_3번의 경우는 둘 다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의 문제인데, 10_2는 오답률이 높았고(15.6%), 10_3은 낮았다(10.2%). 10_2는 두 가지 구조가 선택지로 경쟁하는데, employment contracts가 과거분사 revised의 수식을 받는 구조와 현재분사 revising의 목적어가 되는 구조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주어 뒤에 "~will be distributed at the end of the month"가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수정된 고용 계약서(revised employment contracts)'라는 의미를 만드는 revised가 적절하다. 즉, 뒤따르는 문맥까지 고려해야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10_3의 경우는 이러한 구조적 경쟁 없이 과거분사 interested가 명사 individuals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즉, 같은 명사 수식 분사 문항에서도 문장 구조와 문맥이 다른 경우 오답률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범주별 결과는 이러한 문항 수준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항 분석을 종합하면, 오답률 상위 문항에는 명사의 가산성, 문장 중간에 시작되는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명령문, 수식어구가 개입된 수일치 등 서로 다른 문법적·구조적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한 문항이라도 정답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장 구조와 문맥에 따라 오답률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높은 오답률을 하나의 공통 원인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범주별 양상과 함께 개별 문항에서 요구하는 문법 지식과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논의

본 연구는 4년간의 토익 리딩 수업에서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파트 5 문법 문제의 오답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도록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토익 파트 5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문법 범주별 오답률은 어떠한 상대적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결과로, 기술통계상 토익 파트 5의 범주별 평균 오답률은 문장의 구조, 명사, 동사형태와 수일치, 대명사, 등위/명사절 접속사, 분사, 시제, 관계사, 전치사,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와 부사, 비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범주 내에서도 문항 간 오답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항과 연도를 랜덤효과로 포함한 선형 혼합모형 분석에 따르면 범주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항 랜덤효과를 제외한 보조 모형에서는 범주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모형 비교 결과, 문항과 연도를 모두 랜덤효과로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았다. 즉, 문항별 차이를 고려하면 범주의 상대적 수준 차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범주별 평균 오답률의 상대적 순위는 기술통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장의 구조 범주에서는 일부 문항의 오답률이 예외적으로 높았으며, 그중 명사 관련 1_6 문항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이에 대한 보완적 분석으로 최미양(2015)의 방법에 따라 전체 평균 오답률 대비 이상·이하 문항 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오답률 이상의 문항 수가 가장 많은 범주는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해당 범주에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는 기술통계적 결과이며, 두 범주 자체의 일반적인 난이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2022~2025년의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오답률을 보이는 문법 범주는 무엇인가?”에 관련하여, 연도별 서로 다른 독립 집단에서 나타나는 오답률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일한 집단을 연도별로 추적한 연구가 아니므로, 이 결과는 동일 집단 문법 능력의 추세적 변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도 집단에서 반복된 기술통계 양상을 의미한다. 그 결과, 각 연도 전체 120문항의 평균 오답률을 기준으로 문장의 구조와 명사 범주는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오답률을 보였으며, 전치사와 비교 범주는 4개 연도 모두 해당 연도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범주는 연도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달라졌다.

연구문제 1은 4개년 통합 자료에서 범주별 평균 오답률과 전체 평균 이상·이하 문항의 분포를 살펴본 반면, 연구문제 2는 각 연도 내에서 범주별 오답률의 상대적 위치가 반복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전체 평균 이상 문항이 많이 포함된 범주와 4개 연도 모두에서 해당 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범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두 분석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세 번째 연구문제인 “토익 파트 5에서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문항들은 어떠한 문법적 특징을 가지는가”와 관련하여, 전체 120문항 중 오답률 상·하위 각 10문항을 분석하였다. 오답률 상위 10문항에는 명사의 가산/불가산 구별, 문장 중간에 명령문이 시작되는 구조, 개별 대명사의 용법,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다른 명사가 포함된 수식어구가 개입된 수일치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_6 문항은 명사의 단·복수 형태와 수일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항이었다. 하위 10문항에는 장소 전치사 at, 수동태 과거분사, 주격관계대명사 등 상대적으로 한 가지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평균 오답률 이상 문항의 개수가 가장 많았던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 범주에서도 상·하위 3문항 대조를 통해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whether or not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문사+to부정사 구조, 문장 전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등위 접속사 but 문항, that절을 포함한 수동태(are reminded that), 수동 분사구문 등 오답률 상위 문항에는 여러 문법 요소가 결합된 구조가 포함되었다. 반면에 오답률 하위 문항은 3형식 동사의 목적어 that절, 상관접속사(both A and B), 명사수식 분사, 보어로 쓰인 분사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범주의 문항이라 할지라도 문장 구조의 복잡성, 문맥 및 의미적 요인 등에 따라 오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최미양(2015)에서도 문법 문제의 오답률이 문장 구조의 복잡도, 어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범주별 오답률을 분석할 때에는 범주 수준의 평균뿐만 아니라 범주 내 문항별 변이와 개별 문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익 파트 5 문법 오류를 분석한 최미양(2015)과 본 연구를 비교하면, 두 연구 모두 대학생들이 토익 문법 문제의 어떤 범주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 자료와 분석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최미양(2015)은 한 학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오답 번호와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반면, 본 연구는 2022~2025년 4년간 총 220명의 오답 자료를 온라인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여러 연도에 걸친 문법 범주별 상대적 오답 양상과 서로 다른 연도 집단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에서도 최미양(2015)은 영역별 문제 유형의 오류 비율을 제시하고 평균 이상 오류율을 보인 문제의 비율을 통해 범주 간 차이를 분석하고 오류율이 높은 문제 유형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범주별 평균 오답률과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 수를 함께 분석하고, 오답률 상·하위 문항의 특성과 연도별 양상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최미양(2015)에서는 오답의 원인까지 종이에 작성하게 하여 수집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택지별 응답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오답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연구에서 다루는 문법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각 범주에서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의 비율을 기술적으로 비교하면, 두 연구 모두 수일치, 동사 및 접속사 관련 범주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교 범주에서는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범주 자체의 난이도가 두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연구 자료에서 관찰된 문항 분포에 일부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본 연구에서 명사 범주는 기술통계상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오답률을 보였으며, 오답률 상위 10문항에는 세부 문법상 가산·불가산 명사와 관련된 문항이 세 문항(각각 1위, 2위, 6위) 포함되었다. 최미양(2015)에서는 가산·불가산 명사의 구별이 별도의 문제 유형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산성 관련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문항이 오답률 상위 문항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영작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온 명사의 가산성 관련 어려움(이민정 2012, 최인희 2014, 한영주 2014, Koh 2026 등)이 토익과 같은 통제된 문법 과제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토익 및 문법 수업에서 수일치, 동사 형태, 접속사 등 최미양(2015)에서도 높은 오류율을 보인 영역뿐만 아니라, 명사의 가산성 관련 문항도 진단과 지도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작문 선행연구에서는 명사의 단·복수 형태와 가산성에 관련된 오류가 높은 순위로 보고되었다(이민정 2012, 손희정, 장우혁 2021 등). 본 연구에서도 오답률 1위와 2위 문항이 명사의 가산성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가산성 관련 문항도 오답률 상위 10문항에 포함되었다. 문장의 구조 범주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_6 문항도 명사의 단·복수 형태와 주어·동사 수일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다. 특히, advance나 approach와 같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추상명사의 가산성과 관련된 문항의 오답률이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 추상명사의 가산/불가산 구분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성헌 2018, 이혜진 2017, Amuzie and Spinner 2013). 추상명사는 불가산명사라고 일률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추상명사라도 가산명사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산/불가산성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명사의 의미와 용법에 따른 가산성을 함께 학습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등위·명사절 접속사 범주에서는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었지만, 같은 범주 안에서도 문항별 오답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최미양(2015)에서도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오류율이 크게 달랐다는 점에서, 접속사 관련 결과 역시 범주 전체보다 개별 문항과 접속사 유형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영작문 오류 분석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회피 전략에 따라 접속사가 없는 단문을 쓰거나(최인희 2014, Koh 2026), 명사절 접속사를 많이 쓰지 않아 이에 대한 오류 양상이 많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부사절 접속사와 명사절 접속사를 구분하지 않고 접속사 오류라는 단일 범주에 넣어서(최인희 2014), 그 둘을 구분한 연구가 거의 없다. 손희정과 장우혁(2021)에서는 발생률이 높은 10개 범주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 접속사는 속하지 않았다. 반면에 토익 문법 오류를 분석한 최미양(2015)에서는 접속사 문제 유형에 따른 오류 비율을 제시하면서, 명사절 접속사(that, how)와 부사절 접속사(once, while, since, unless, although)의 오류를 따로 보고하였다. 이 중 명사절 접속사의 오류율은 각각 32%, 44%, 부사절 접속사는 5%~43%였다.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unless의 오류율은 43%로 명사절 접속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부사절 접속사들은 모두 27% 미만으로 명사절 접속사보다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접속사 범주 안에서도 문항 유형에 따라 오류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문항별 변이와 유사하다.

이처럼, 영작문의 오류 분석에서 학습자들의 회피 전략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이 나타난 구조, 즉 수식어구가 개입된 주어–동사 수일치 구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유도작문(guided writing) 또는 통제작문(controlled writing)을 통해 오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이혜진 2017). 이렇게 확인된 오류 양상에 대해서는 해당 문법 항목을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법 연습을 제공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들어, 가산/불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추상명사의 다양한 가산/불가산 용법을 문맥 속에서 구별하는 연습을 제공하고, 수일치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다른 명사가 포함된 수식어구가 있는 문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주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동사 형태를 선택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장의 구조 범주의 문장 중간 명령문의 경우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와 뒤따르는 명령문의 경계를 표시하고, 주절의 구조를 파악한 뒤 빈칸에 필요한 동사 형태를 선택하는 연습을 제공할 수 있다. 기초적인 문법 지식이 독해, 듣기, 말하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유경아 2019)을 고려하면, 학습자의 문법 오류 양상을 진단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문법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목표로 한 명시적 지도와 다양한 연습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문법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약한 문법 항목의 지도를 위해서는 설명 위주의 강의 대신 형태초점 의사소통 모형이 효과적일 수 있다(김혜경 2013). 김혜경(2013)에서는 55명이 수강하는 수업에서 2인 1조로 목표 문법 항목으로 구성된 활동지를 사용하여 규칙 발견 활동을 한 후, 짝과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규칙을 내재화할 수 있게 했다. 이 활동을 수행한 실험반은 규칙 설명과 문제 풀이로 수업을 진행한 통제반에 비해 유의미하게 토익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토익 문법 수업은 다룰 내용이 많고 수강 인원이 많아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윤유진 2018, 정양수 2014). 모든 문법 범주에 대해 형태초점 의사소통 모형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토익 문항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이 확인된 문법 요소나 문항 유형에 대해서만이라도 형태초점 의사소통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규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개별 학습자의 취약 문법 항목에 대해서는 토익 기초클리닉(윤용배 2024)과 같은 보충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조혜선 2020).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과제 지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로 틀린 문항의 번호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일부 학생이 틀린 문항을 누락하거나 실제로 틀리지 않은 문항을 제출하거나 입력 과정에서 잘못된 번호를 입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오답 문항을 직접 보고하는 방식의 자료 수집에 내재한 한계이다. 최미양(2015)에서도 학생들에게 틀린 문항 번호와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유사한 자료 수집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출된 오답 번호를 실제 답안 자료와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학생의 실제 오답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이 제출한 오답 번호에 기반한 집단 수준의 상대적 오답 양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답 번호만 수집하고 선택지별 응답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선택지별 응답 자료를 수집하고, 개방형 설문, 사고 구술 기법(think-aloud protocol; 임병빈 외 2014), 면담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학습자들이 많이 선택한 오답과 그 선택 원인까지 분석한다면 더 심층적인 문법 오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하나의 입문서 교재에 수록된 실전 테스트 문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법 오류 유형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to부정사, 동명사, 능동태와 수동태 단원은 과제에서 제외되어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재가 입문서라는 특성상 가정법과 도치 등의 고난이도 문법 범주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 범주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4년간의 토익 리딩 수업에서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파트 5 문법 오답 양상을 분석하였다.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객관식 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영작문에서 회피로 인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문법 요소의 상대적 오답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만 범주 내 문항 간의 오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항과 연도를 랜덤효과로 포함하여 문항별 변이를 통제한 혼합모형에서는 범주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완적으로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 수와 각 연도 전체 평균 대비 범주별 상대적 오답률을 분석하고, 오답률 상·하위 문항의 문법적·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문장의 구조와 명사가 4개 연도 모두 해당 연도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오답률을 보였고, 전치사와 비교는 4개 연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동일 집단의 시간적 변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도 집단에서 반복된 상대적 양상으로 해석하였다. 개별 문항 분석에서는 오답률이 가장 높은 두 문항을 비롯하여 영어 명사의 가산성과 관련된 문항들이 상위 문항에 포함되었다. 등위·명사절 접속사와 분사는 전체 평균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 수가 가장 많았다. 다만 이는 해당 범주에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기술통계적 결과이며, 두 범주 자체의 일반적인 난이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오답률 상위 문항에는 여러 문법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항이, 하위 문항에는 상대적으로 한 가지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방법론적인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와 같이 여러 문항을 문법 범주로 묶어 범주별 오답률을 분석할 때에는 같은 범주 안에서도 문항별 오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범주 수준의 결과와 함께 개별 문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제출한 오답 번호에 기반한 집단 수준의 상대적 양상이며, 선택지별 응답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오답의 원인까지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 범위 내에서,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과 문법 요소에 관한 결과는 대학 토익 및 문법 수업에서 학습자의 오답 양상을 진단하고 지도 내용을 구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사의 가산성 판별, 수식어구가 개입된 수일치,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 뒤의 명령문 구조 등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의 특징에 맞춘 연습을 제공하고, 이러한 문항 유형에 형태초점 의사소통 활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개별 학습자의 취약 항목을 토익 기초클리닉과 온라인 보충 학습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현숙(Kang, H.-S.). 2021. 대학 영어비교과프로그램에 나타난 영어학습에 대한 요구(Revealing the needs of college students studying English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교양 교육 연구≫(*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6), 251-264.

김성헌(Kim, S.-H.). 2018. 한국인 EFL 학습자의 부정관사 사용(Use of the indefinite article by the Korean EFL learners). ≪언어와 언어학≫(*Language and Linguistics*) 79, 77-96.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김영자(Kim, Y.). 2014. 영어쓰기 수준별 오류 분석 연구: 동사·관사를 중심으로(A study of learner's errors in verbs and articles by two different levels of college students). ≪영어영문학≫(*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9(3), 139-164.

김혜경(Kim, H.). 2013. 형태초점 의사소통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대학 토익 문법 수업의 효과(The effects of focus-on-form instruction in college TOEIC classes on grammar learning). ≪현대영어영문학≫(*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7(1), 75-96.

박분주, 권영수(Park, B. J. and Y. S. Kwon). 2015. 영어학습자들의 주어-동사 수 일치 견인현상에 대한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 to EFL learners' attraction during subject-verb agreement processing). ≪현대문법연구≫(*Studies in Modern Grammar*) 86, 225-244.

박현숙, 최미옥(Park, H. and M. Choi). 2014. 대학생을 위한 단기 집중 영어캠프가 토익점수 향상에 미치는 효과(The effects of intensive English camp for college students on the improvement of TOEIC score). ≪언어학 연구≫(*Studies in Linguistics*) 30, 149-166.

박혜경(Park, H.-K.). 2023. ChatGPT를 활용한 영어글쓰기 문법 오류분석: 한국대학생 사례 연구(The use of ChatGPT for grammatical error analysis in EFL writing: A cas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8(4), 25-53.

서연주, 김채은(Seo, Y. J. and C.-E. Kim). 2024. 토익 문법 문항 분석 연구(An analysis of grammatical items in TOEIC tests). ≪새한영어영문학≫(*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6(1), 101-127.

손희정, 장우혁(Son, H.-J. and W. H. Chang). 2020. 한국인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에 나타난 문법 오류 분석(An analysis of grammatical errors in English speak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4(3), 277-313.

손희정, 장우혁(Son, H.-J. and W. H. Chang). 2021. 한국 대학생의 수준별 영어 글쓰기 오류 분석(An analysis of errors in English writ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by English proficiency levels). ≪인문학연구≫(*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60(1), 159-194.

유경아(Yu, K.-A.). 2019. 대학교 영작 클리닉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 - 목원대학교를 중심으로(A case study of English writing clinic program operation and its improvements in Mokwon University writing center).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133-142.

윤소영(Yoon, S. Y.). 2023. 교양영어 토익수업 사례연구: L2화자의 문법적 오류 양상(A case study on learning English grammar and L2 speakers' common mistakes in solving TOEIC questions). ≪리버럴아츠≫(*Liberal Arts*) 3(1), 55-82.

윤용배(Yoon, Y.). 2024. 영어 기초클리닉을 통한 토익문법 향상방안(Improving TOEIC grammar through an English basic clinic). ≪유라시아연구≫(*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1(3), 241-254.

윤유진(Yoon, E.). 2018.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효과 - 학생의 영어성취도 향상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ways for improving a general English education program at a university: Focus on the analysis of English achievement). ≪언어학 연구≫(*Studies in Linguistics*) 47, *331-353*.

이경랑(Lee, K. R.). 2014. 영어 학습자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문법 오류분석 연구(Profiling Korean English learners' writing errors).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4(2), 301-321.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Lee, D. M., K. H. Hong and K.-H. Hwang). 2013.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응시에 대한 반응연구(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OEIC). ≪새한영어영문학≫(*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5(2), 233-248.

이민정(Lee, M. J.). 2012. 한국 대학생의 영작문 오류 분석 연구(*Morphological Error Analysi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Composition*).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sity).

이준용(Lee, J.). 2009. 영작문의 오류 분석 및 처리(Error analysis and treatment in English writing). ≪새한영어영문학≫(*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1(2), 241-261.

이지연(Lee, J.-Y.). 2024. 대학교 교양 영작문 수업의 학습자 영작문과 생성형 AI 기계번역 결과물의 비교를 통한 학습 방안 제시(Enhancing college EFL writing: Comparing student compositions and AI translations). ≪교양교육실천연구≫(*Study on Liberal Education Practice*) 8(1), 117-130.

이혜진(Lee, H.). 2017. 대학 신입생의 영작문에서 나타난 오류 분석 연구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를 중심으로(An error analysis of English writing by college freshmen in Korea focused on interlingual and intralingual errors). ≪코기토≫(*Cogito*) 83, 233-268.

임경빈(Im, K.). 2022. 해외봉사활동 대학생들의 학습지도안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 분석(Analysis of errors in the English writing of university students' teaching plans for overseas volunteer service). ≪영어영문학≫(*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7(1), 259-281.

임병빈, 이현구, 송해성, 김현진, 장형지(Im, B., H. Lee, H. Song, H. Kim and H. Jang). 2014. 『영어교육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in English Education*). 서울: 한국문화사(Seoul: Hankook Munhwasa).

임정완, 최에레사(Lim, J. and E. Choi). 2008. 대학생 영작문 오류분석과 그 효과성 연구(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rror analysis and its practices in English writing for college students). ≪영어영문학≫(*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3(1), 137-167.

정양수(Jung, Y.). 2014.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운영 효과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level-specific general English and its effects). ≪언어학연구≫(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9(3), 127-148.

정연우, 유원호(Jung, Y. and I. W. Yoo). 2011. 대학교 신입생들의 영어쉼표 오류분석(A corpus study of English comma uses in Korean college students' compositions).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66(4), 261-279.

조혜선(Cho, H.). 2020. 예습 과제 활용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업 사례 연구: 대학교 토익 수업에서(A case study of online recorded lectures with preview homework in university TOEIC courses). ≪멀티미디어 언어교육≫(*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413-431.

최미양(Choi, M. Y.). 2015. 대학생들의 TOEIC 문법 오류분석(An analysi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grammar errors in TOEIC). ≪현대영어영문학≫(*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9(4), 421-446.

최인희(Choi, I.-H.). 2014.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쓰기에 나타난 문법 오류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자와 비교하여(A study on English writing error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Compared with those of overseas training group). ≪현대문법연구≫(*Studies in Modern Grammar*) 77, 159-185.

한영주(Han, Y.). 2014. 대학생 영작문의 문법 오류분석(An error analysis of grammar i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compositions).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4(4), 525-548.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

ETS. 2021.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입문서 RC 리딩』(*The ETS TOEIC® Starter Reading*). 서울: YBM(Seoul: YBM).

Ahn, M. and N. Kang. 2015. An analysis of written errors of Korean adult learners of English. *Modern English Education* 16(2), 67-89.

Amuzie, G. L. and P. Spinner. 2013. Korean EFL learners' indefinite article use with four types of abstract nouns. *Applied Linguistics* 34(4), 415-434.

Bauer, L. and P. Nation. 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6(4), 253-279.

Brown, H. D. 201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6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Corder, S. P. 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9(2), 147-160.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erris, D. R. 2002. *Treatment of Error in Second Language Student Writing*.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oh, S. 2026. An empirical analysis of EFL Learners' revisions in AI-assisted writi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4(1), 19-39.

Kuznetsova, A., P. B. Brockhoff and R. H. B. Christensen. 2017. *lmerTest* Package: Tests in Linear Mixed Effects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2(13), 1-26.

Ludewig, U., J. Schwerter and N. McElvany. 2023. The features of plausible but incorrect options: Distractor plausibility in synonym-based vocabulary test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41(7), 711-731.

Park, J. 2011. A frequency analysis of English suffixes based on corpora. *English Teaching* 66(1), 201-224.

Schachter, J. 1974. An error in error analysis. *Language Learning* 24(2), 205-214.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 2026 KASELL All rights reserved